

#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 中學校 教科를 中心으로 —

高孝叔\* · 梁鎮健\*\*

## 목 차

1. 學習內容의 選定 條件과 組織方法
2. 濟州島 郷土史 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3. 選定과 組織의 結果

최근 歷史教育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 자체를 교육하는 한편 역사로써 인간을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역사교육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식과 교육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사 학습과의 연계, 학생중심의 주체적 학습, 자기인식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郷土史<sup>1)</sup> 學習은 그러

\* 신성여중 교사

\*\* 제주대 교직과 교수

- 1) 郷土史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郷土史, 地域史, 地方史 등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향토사란 구래의 전통적인 지역사연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방사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이기에 사회과학 부문에서 객관성을 지닌 지역사란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큰 의미의 지방사가 역사교육에 사용될때는 향토사로 일컫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역사교육에서 향토사학습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歷史學習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견해에 동조하며 향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 역사교육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양상이다.

역사를 교육한다 함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와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이는 역사교육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바르게 인식함과 더불어 역사적 방법을 탐구하고 통찰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의 하나가 바로 郷土史學習<sup>2)</sup>인 것이다.

이른바 향토사학습이란 방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내에서 역사 탐구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향토사를 중심으로 향토사와 민족사 전체의 문제를 연관하여 성찰하는 학습으로 향토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족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습이다.<sup>3)</sup>

일반적으로 향토사는 민족의 역사가 축소된 것이며 국가사의 일부분이기에 국가사 이해에 유용한 접근방식을 마련해 주는 이른바 국가사의 보조학문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사는 국가사의 보조적 역할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歷史教育的 意義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향토사를 국가사의 일부나 보조학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sup>4)</sup>

따라서 향토사 연구는 중앙지향, 권력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향토사회의 주체인 민중의 역사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정치사 중심에서 문화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하겠다. 대체적으로 향토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경향 변화<sup>5)</sup>에 염두를 두면서 전체 민족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

2) 본고에서의 郷土史學習이란 郷土史 資料의 이용을 통한 歷史學習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p. 10.

4) 李元淳외, 「歷史教育論」, 三英社, 1983, pp. 291-292.

H.P.R. Finberg, 'Local History', in Finberg and Skipp (ed.), *Local History: Objective and Pursuit* (David & Charles, 1967), pp. 25-33.

5) 現代 歷史學의 흐름은 주명철,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韓國史市民講座」 8집, 一潮閣, 1991. 참조.

화를 이루어왔고, 이에 따른 민중의 생활상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향토사학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현행 5차 교육과정의 國史科에서는 「향토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향토애호 및 문화존중의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향토사학습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특히 민족사교육을 위해 주변의 친숙한 교재인 향토사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향토사학습은 1995년도 시행 예정인 6차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향토사학습이 지니는 많은 장점과 교육과정상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향토사학습은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의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sup>7)</sup>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과 입시교육 등의 교육제도 운영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들 수 있다. 그런가하면 향토사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향토사학습 교육자료 또한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향토사학습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과 자료집의 부족, 지도방법의 미숙, 수업진도의 차질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향토사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향토사학습이 역사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지도과정 및 절차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저간의 향토사 연구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향토사 교육자료의 개발과 향토사

6) 教育部, 「중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1993.

7) 教育課程의 地域化란 교육과정의 제정이나 결정권한을 지역단위 교육청이나 학교급별 단위 학교에서 담당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와 국가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지역화라는 소극적 의미의 지역화를 생각해 볼수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지역화를 절충시켜 민족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에서 결정하고 향토사 부분은 해당 교육청 단위로 결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학습 지도방법의 개발 등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을 토대로 한 향토사학습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과 지도방법의 개발이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교육계의 형편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더욱 긴요한 실정이다.

## 1. 學習內容의 選定條件과 組織方法

### 1) 學習內容 選定條件

향토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인간행동과 사상이 남긴 흔적의 총체이며 향토의 변천과정 속에서 고향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諸활동의 잔존물이다. 따라서 향토사료는 향토의 과거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역사적 교재인 것이다. 이러한 향토사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토사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郷土史料<sup>8)</sup>는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대개가 일상의 두터운 층에 숨겨져 있어 교사는 그 층을 제거하고 실제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평소 향토사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수업현장에서 끌어들이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학습내용으로 적절한 향토사료 선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수되어야 할 조건<sup>9)</sup>이 있다.

1.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목표성)
2. 학습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성)
3.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단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능력과 발달성)

8) 향토사료의 분류는 다양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① 유형문화재, ② 무형문화재, ③ 기념물, ④ 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송춘영은 ① 물질적 자료, ② 제도적 자료, ③ 무형적 자료, ④ 인물자료, ⑤ 산업경제적 자료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① 유형문화재, ② 무형문화재, ③ 민속자료, ④ 사적, ⑤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9) 宋春永, "歷史教育에 있어서 郷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歷史教育論集」, 13·14합집, 1990, p.21.

4. 역사가에 의하여 가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 것을 선정해야 한다. (가치와 신빙성)
5. 시기와 작가,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근원성)
6. 문헌이나 문서자료는 번역된 권위있는 단행본이나 문고판을 선정하되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확성)
7. 문헌이나 문서자료 외에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과학적 자료도 선정하여야 한다. (다양성)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향토사학습 내용선정은 향토의 전 시대, 전 분야를 망라한 역사학습을 추구하기보다는 향토의 특색에 맞추어 가장 유용한 시대나 사상을 택하여 실시함이 좋다. 또한 유명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有形, 無形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상이나 향토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역사적 경관, 그리고 향토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의 뿌리인 생활문화 - 의식주·신앙·노동·연중행사 - 전반을 대상으로 함이 유용하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의 발달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학습내용은 향토의 문화재 등 구체적인 것, 구체적 事象을 택해야 한다. 특히 의식주나 제례 등의 의식, 연중행사 등의 생활문화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동의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사상의 나열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밑에 흐르는 인간생활이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이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sup>10)</sup>

그리고 향토의 역사적 事象은 향토마다 특색을 갖고 있는데 이는 풍토적 조건<sup>11)</sup>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풍토적 조건을 학습내용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확고한 郷土認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양면을 고려한 내용이 효과적이다.

10) 小關洋治編, "身近な地域の歴史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ーウツ3』, 明治圖書, 1990. pp. 16-17.

11) 향토의 풍토적 조건 즉,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아날학과 브로델의 시간 개념 중 장기지속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 역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필요 불가결의 요인인 것이다. 나종일, "브로델의 전체사",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1992.

향토의 역사적 事象중에는 이미 소멸하여 오늘날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시대를 초월하여 향토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향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인문과학의 성과를 심분 활용하여야 한다.

## 2) 學習內容 組織方法

선정된 향토사료를 바탕으로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分散的 接近과 主題的 接近<sup>12)</sup>이 있다. 전자가 전체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토사를 조직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향토사를 직접 학습대상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전체사의 이해를 가능하도록 향토사를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적 접근방법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통사 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향토적 사례들을 예증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시 수업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향토사료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수업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향토사료의 활용이 가능하며 교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 심화시킬 수 있다. 즉, 국사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어떤 발전의 실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토사학습 내용이 조직되는 것이다.<sup>13)</sup>

이 방법은 교사가 흔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고 전통적인 종래의 국사 교수요목의 틀 속에서도 무난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심화할 뿐 향토적 증거를 통한 탐구 능력의 신장이라는 향토사학습의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성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주제적 접근방법은 교수요목을 세울때 향토사의 주제를 하나의 독립적인 단원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향토사 교재로써 전체사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토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사실을 전체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빠르게

12) 宋春永, "國史教育에 있어서 鄉土史 教材의 指導方案", p. 24.

13) R. Douch, *Local History and the Teacher*,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1, p. 120.

과약하는 한편 향토사의 특징을 과약하고 나아가서는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은 향토사료를 통해 향토사의 인식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지만 향토사 단원 설정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향토사료를 수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그리고 향토사가 전체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밖의 조직방법으로는 聯關的 方法, 典型的 方法, 特設的 方法<sup>14)</sup>을 들 수 있다. 연관적 방법은 분산적 접근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체사 학습과정에서 향토사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며, 전형적 방법은 전체사의 단면을 향토사의 구체적인 예로써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으로 분산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의 혼합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설적 방법은 주제적 접근과 유사한 방법으로 향토사를 직접 학습내용으로 조직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내용 조직방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화 단원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법 중 기존의 단원마다 따로 지역화 항목을 추가해 넣는 방법과 독립된 단원으로 지역화 단원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분산적 내용조직과 관련시킬 수 있으며 후자의 방법은 주제적 내용조직과 관련시킬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은 교과서의 제작 기술상 실현이 어려우며 따라서 후자의 교육과정 지역화 방안과 주제적 내용조직이 효과적인 향토사학습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濟州島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향토사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제주도 향토사학습을 위해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 즉, 제주도의 역사는 다른 지방과 달리 특수한 성격이 많기는 하지만 향토사학습의 내용은 지나치게 제주도의 특수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민족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늘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주도 향토사학습의 내용은 제주도 문화의 특징인 도서문화성, 서민문화성, 고유문화성이 내재되어 있는 생활양식을 고려한 생활

14) 小關洋治編, "身近な地域の歴史の學習", 『社會科歴史のキ-ウト3』, 明治圖書, 1990. pp. 20-21.

사·문화사 중심의 학습이어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향토사 학습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과연 분산적 접근을 통한 내용 조직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리고 주제적 접근은 또한 어떤지를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 교과서 향토사학습 내용의 조직

현행 중학교 국사과 교과서(상, 하)에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향토사 학습 내용은 거의 희박한 실정이다. 다만 유적지도 등에 한반도 전체 상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맥락에서 제주도가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이 역시 특정 내용에만 한정되고 있다.

단 원 명	시간단원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사료와 내용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 선사시대의 생활	2) 구석기시대 생활	선사시대의 유적지도(7쪽)	- 제주도의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않음
	3)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지도(7쪽)	- 팍지패총2지구 3,4층에서 공렬토기 발견됨
		청동기시대의 집자리	-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에 서 발견됨
고인돌		- 제주시 용담동,애월읍 광령 리일대 고인돌 밀집지역	
2.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1)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고인돌	- 용담동무덤 남쪽 묘역
		돌널무덤	- 용담동무덤 북쪽묘역(독무 덤, 석관묘) 철제유물과 광 지A식토기 발견
3. 여러나라의 발전	1) 철기문화와 사회의 발전	선사시대의 유적지도(7쪽)	- 용담동무덤 북쪽묘역(독무 덤, 석관묘) 철제유물과 광 지A식토기 발견
II. 삼국의 발 전과 그 문화 1. 삼국의 발전	4) 고구려의 융성	고구려의 전성도 (31쪽)	- 제주도를 탐라라 표시 탐라국의 성립을 시사
	6) 문화의 전파	삼국문화의 일본 전과도(54쪽)	- 백제문화의 일본전과 경로 황해-탐라경유-하카타
IV. 고려사회의 발전 2. 국가체제의 정비	1) 정치와 군사 조직	5도양계 지도 (92쪽)	- 탐라국 표시, 고려의 번국 - 숙종10년(1105)에 탐라군으 로 고려에 편입됨.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6.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	7)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항몽순의비(사진)	- 제주도 애월읍 향파두리성 1271. 5. ~1273. 5. 대몽항쟁 - 1977년 성역화
7. 고려후기 사회의 변화	1) 원과의 관계	원의 탐라지배 (100년간)	- 탐라총관부 설치. 목마장경 영. 다루가치과전. 일본정벌 을 위한 전선제조.
V. 조선사회의 발전	5) 지방행정제도	조선초기의 행정 조직지도(144쪽)	- 제주도표시. 태종16년(1416)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설치.
1. 양반관료사 회의 성립	8) 조운과 역원	조선시대의 조운 도. (148쪽)	- 제주도를 양유지역으로 표시. 대동법 실시이후의 조운도라 여겨짐.
I.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5) 서양문물의 전래	표류해온 서양인	-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일행 1627년(인조) 제주에 상륙 - 1653년(효종) 하멜일행표류 서울로 압송. 「하멜표류기」
3. 실학의 발달		하멜기념비(사진)	-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4. 문예활동의 새 동향	4) 글씨와 그림	추사체	- 추사 김정희 대정현(1840- 1848)에 적거. 새로운 서체 경지를 개척하여 추사체 완성
	6) 서민오락	조선후기의 서민 오락 분포도(33쪽)	- 제주도의 오돌또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
5. 사회동요와 종교의 새기운	3) 농민의 저항	19세기의 민란도 (38쪽)	- 양제해모변(1812년) 임술제주민란(강제검의 난) 발생
II. 근대사회의 성장	4) 도시의 발달	근대의 도시분포 도 (107쪽)	- 제주인구 1만~2만의 도시로 표시됨. 1904년 호구보고 제주목 중면 25리 4,309호 12,651명(남 : 6,192명)
7. 근대시설과 경제생활의 변화			
III. 민족운동의 전개	2) 3·1운동의 전개	제주도의 3·1운동	- 조천만세운동 (1919. 3. 21. ~24)
2. 3·1운동			

IV. 현대사회의 발전	2) 분산주의자들의 남한교란	제주도의 4·3사건	- 1948년 좌익진영에서 폭동 유발. 우익의 과잉진압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
2. 민족분단의 시련			

2) 분산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분산적 접근에 의한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은 국사의 교수요목이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향토사 단원도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향토사와 국사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산적 접근에 의한 제주도의 향토사학습 내용조직 또한 연대기 순서에 의해 구성되었다.

단원명	시간단원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자료와 수집내용	자료유형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 선사시대의 생활	2) 구석기시대의 생활	제주도지방 구석기 유적유물 발견지	- 애월읍 빌레못동굴 박편석기, 갈색곰의 동물화석출토 - 제주도과 육지와와의 연결 입증 - 서귀포 천지연유적 참기, 굽개, 흙날석기	슬라이드
	3) 신석기시대의 생활	제주도지방 신석기 유적유물 발견지 제주도지방의 신석기유물	- 고산리, 북촌리, 월령리, 김녕리, 사계리등 - 토기류: 압인점렬, 용기문, 접아가리토기 - 동해, 남해안의 영향	슬라이드 분포도 슬라이드
2.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1)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제주도지방 청동기 유적 발견지	- 상모리 산이수동, 괄지리패총, 용담동무덤 유적 등 7개소 - 청동유물은 미발견 공렬토기가 대표적	슬라이드 분포도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패총	- 어로와 조개채취 원형화덕자리 확인 공렬토기출토	슬라이드
		괄지패총 2지구 3-4층의 공렬토기	- 점토띠토기와 함께 출토. 청동기에서 초	슬라이드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3. 여러나라의 발전	1) 철기문화와 사회의 발전	용담동 남쪽묘역 석관묘	기철기로의 전환 - 고인돌의 하부구조로 여겨지는 석관묘3기 - 공렬토기	슬라이드
		제주도 철기시대 (주호시대)의 유적	- 동굴입구와 바위그늘 집자리. 패총. 고인돌군. 독무덤 등	슬라이드 분포도
		고인돌 분포도	- 남부지방에서 건너와 발전한 위석형 - 광령리. 오라동. 삼양동 등 19지역60여기	슬라이드 분포도 현장학습
		곽지A식 토기	- 제주도 도처에서 출토되는 이 시대의 표식적 유물	슬라이드
		용담동 북쪽묘역 출토 독무덤	- 독무덤6. 석관묘1기 - 곽지A식토기. 한식철제유물. 전한대의 유리구슬 출토	슬라이드
		산지항 출토 오수전	- 1928년 산지항 축조시 오수전4매. 동경 출토 - 중국과의 교역, 철기 문화수용을 입증	슬라이드
		주호인(담라인)의 활동	-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 - 마한의 서쪽바다 큰 섬. 中韓을 왕래	문헌자료
II. 삼국의 발전과 그 문화	1) 왕권의 강화	담라국의 성립	- 제주도 개벽설화. 삼성혈. 제주목 관아지 A구역. 곽지B식 토기 - 백제, 신라, 고구려, 일본, 중국과 교류	문헌자료 현장학습
1. 삼국의 발전				
4. 삼국의 문화	4) 미술	황룡사 9층탑 건립 「삼국유사」	- 주위9국을 불력으로 복종시키고자 건립 - 4층탁라(담라)	문헌자료
	6) 문화의 전파	추정되는 고대해로	- 황해. 남해-담라-하카타-나라 - 백제문화 전파	역사지도

Ⅱ. 통일신라와 발해 1. 통일신라의 발전	1) 정치제도	통일신라와 탐라와 의 관계	-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2년 탐라의 속국사실 기록	문헌자료
	4) 해상무역	탐라인의 해상활동	- 韓中日간의 해상교 의 요지. 제주도내 당포라는 지명. 「당서」에 탐라 기록 - 선박건조, 항해술의 발달을 의미, 태우	역사지도
Ⅳ. 고려사회의 발전 2. 국가체제의 정비	1) 정치와 군사조직	고려시대 제주도 지방의 행정체제	- 국초 : 고려의 번국 자치권 인정 - 1105년(숙종) 탐라군 으로 본토편입 - 현으로 강등(의종) - 제주로 개칭(고종) 부사. 판관과견	문헌자료
6.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	7)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제주도 항쟁	- 항파두리성을 중심 으로 항쟁 (1271. 5. ~ 1273. 5.)	현장학습 화보
		항파두리城내의 유적지	- 토성. 구시물. 살맞은 돌. 장수물. 돌쩌기등	현장견학 슬라이드
7. 고려후기 사회의 변화	1) 원과의 관계	원의 탐라지배 (100년간)	- 탐라총관부. 목마장 설치. 다루가치과견. 전선전조 - 고려, 몽고에의 이중 적 교통	문헌자료
	4) 공민왕의 개혁	추자도 소재 최영 장군 사당	- 1274년(공민왕) 배원 정책의 일환 제주의 목호의 난 진압 - 이민족의 지배에서 자주성회복	사진자료
8. 고려후기의 문화	6) 예술	제주도 지방의 불교문화재	- 원의 영향으로 발전 법화사지. 원당사와 불탑사 5층 석탑 등	현장학습 사진자료
V. 조선사회의 발전	5) 지방행정제도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체제	- 1416년(태종)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정립	역사지도.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1. 양반관료사회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45년(세종)도지관 벼슬폐지, 귀족의 평민화</li> </ul>	
	7) 교육과 과거제도	제주도의 향교와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정의. 대정향교</li> <li>- 굴림서원 : 사액서원 (김정, 김상헌, 정은, 송인수, 송시열배합)</li> </ul>	현장학습
2.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2) 일본및 여진과의 관계	왜구침입과 제주도의 방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말-조선명종 30여회의 왜구침입</li> <li>- 1437년(세종) 3성 10수전소 25봉대 38연대 정비</li> </ul>	현장학습 분포도
3. 경제생활과 민생의 안정	3) 국가재정과 농민의 부담	제주도의 특산물과 공물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마 : 수용비용막대 (봄-여름 수송)</li> <li>    궐 : 9월부터 10일간격 20여회</li> <li>    그의 해산물과 약재</li> <li>- 수송로 : 전남 강진, 해남 경유</li> </ul>	역사지도
4. 민족문화의 창달	7) 미술	관덕정과 들보그림 (보물3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예훈련장</li> <li>- 작자미상의 들보그림 (취과양주굴만교, 상산사호 등)</li> </ul>	현장학습
5. 양반사회의 변천	6) 사회와 봉당정치	유배지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묘사화로 증암 김정적거, 「제주풍토록」 저술, 교학활동</li> </ul>	문헌자료 현장학습
6. 왜란과 호란의 극복	2) 민족의 항전	임진왜란과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경록목사, 용병모집 출륙명령요청</li> <li>- 부호김만일, 500필의 군마헌납</li> </ul>	문헌자료
1.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2. 경제성장과 사회의 변화	3) 상업의 발달	무형문화재 양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제의 주요수단 조천면, 애월면일대 제주양태-강진, 해남</li> <li>- 서울의 양태소</li> <li>- 19C초 양죽의 고갈, 통영양태의 성장으로 위축</li> </ul>	화보
	6) 농촌사회	연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마다 공동으로</li> </ul>	사진자료

			연자매설치. 곡식의 탈곡과 도정에 이용 - 수놓음(품앗이) 풍습	
3. 실학의 발달	5) 서양문물의 전래	하멜기념탑 - 표류해온 서양인	- 1627년(인조) 네델란 드 벨테브레일행 - 1653년(효종) 하멜일 행 「하멜표류기」	사진자료 문헌자료
4. 문예활동의 새동향	4) 글씨와 그림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그림	- 1840~48년 대정현에 적거. 추사체 형성 - 세한도: 유배생활의 지조를 표현	화보 현장학습
	6) 서민오락	제주도 무형문화재 칠머리당굿	- 제주특유의 해녀의 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있음	화보
		영감놀이	- 도깨비신에 대한 굿 풍자와 해학이 넘치 는 종합예술체. - 민중의식 반영	화보
	제주도의 민요	- 여성들의 노동민요 해녀노래, 멧돌노래, 양태노래 등	녹음자료	
5. 사회동요와 종교의 새기운	3) 농민의 저항	제주도지방의 임술민란	- 강제점의 난. 대정현 화전민봉기 도내로 확산 - 민란의 확대(방성칠 의 난, 신축교난)	문헌자료
II. 근대사회의 성장 5. 국권피탈과 의병전쟁	5) 의병전쟁	모충사 의병항쟁 기념탑	- 1908년 고사훈, 김석 운, 전남의병과 연결 무기제조와 군사훈 련 거사계획	현장견학
6. 근대문화의 성장과 애국 계몽운동	4) 근대학교와 민족교육	제주도지방의 근대교육	- 제주보통학교(1907) 북국민학교의 전신 - 신성여학교(1908) 여성교육의 시초	현장학습
		박영효의 교학활동	- 고종퇴위반대로 유 배(1907-1910). 풍토 에 알맞는 작물재배 보급	문헌자료

郷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Ⅲ.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1. 독립운동의 강화	1) 국권의 피탈	島制 실시	- 근대사상의 전파 - 제주도, 울릉도에 도제 실시. 도사파견	화보
	6) 결사를 통한 독립운동	집의계의 결성 - 연미동 조설대	- 이용호 등 12명의 소장파 유학자 독립운동 결의	현장학습
	2. 3·1운동	2) 3·1운동의 전개	조천만세운동 - 1919. 3. 21. ~24 조천, 신촌, 함덕등지 - 조천 미밀동산(독립선언서 낭독, 행진)	현장학습
3. 독립운동의 발전	독립유공자 최정숙	독립유공자 최정숙	- 경성여고보사범과 재학중 3·1운동에 참여, 투옥.	문헌자료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순국열사 조봉식	- 독립기금모집운동으로(445명, 10000원모집) 옥사.	현장학습
4. 민족문화 수호운동	7) 광주학생운동	세화리 잠녀항쟁	- 1932. 1. (1개월간) 세화리, 하도리 잠녀 - 제주여성의 대표적 인 항일투쟁운동	신문자료
Ⅳ. 현대사회의 발전 2. 민족분단의 시련	4) 민족교육운동	농업학교학생 휴학사건	- 1926년 비교육적 차별교육에 항의, 동맹 휴학	문헌자료
	5) 종교활동	보천교의 항일운동	- 1913년 김연일 佛務 團 건설을 예언. 일본인 습격	문헌자료
	천주교의 항일운동	천주교의 항일운동	- 아일랜드사제 3인 반일운동으로 투옥. 일본배전을 예고.	신문자료
2. 민족분단의 시련	2) 공산주의자들의 남한교란	제주도의 4.3사건	- 1948년 좌익진영에서 폭동유발, 우익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사진자료
	4) 6.25전쟁의 발발	제주도와 6.25	- 피난민수용소, 제1훈련소 설치. 제주도민의 지원	사진자료

### 3) 학습내용의 주제적 접근

주제적 접근에 의한 내용조직은 일차적으로 지리적 단위, 이용 가능한 향토 자료, 학생의 흥미를 참조하여 향토의 특수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제주도의 향토사학습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사는 일차적으로 학습주제가 될 것이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련하여 생활유물이나 유적지 또한 중요한 학습주제가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제주도 향토사학습을 위해 ① 제주도의 역사, ② 제주도의 상고시대 유적, ③ 제주도의 생활유물, ④ 제주도의 항일투쟁, ⑤ 제주도의 인물 등과 같은 주제 선정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가능할 것이다.

### 3. 選定과 組織의 結果

현행의 중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차원에서는 국사과에서 분산적 접근 방식으로 향토사학습이 권장되고 있으나 내용선정이나 조직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 실천 또한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향토사학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간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분산적 접근방식에 의한 내용선정과 조직이 보다 엄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제적 접근에 의해서도 학습내용이 선정, 조직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향토사학습 시간이 할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특히 미흡한 분산적 접근방식의 내용선정과 내용조직을 집중적으로 구명하고자 했으며 주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해봄으로써 향토사학습의 진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